

시칠리아 이슬람화 과정에서 베르베르, ‘쿠타마족’의 역할과 시사점

임기대(IMS)

시칠리아는 중부 지중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대결 국면을 형성했던 곳이며, 중세시대 이 지역은 이슬람의 땅이었다. 시칠리아 이슬람의 정복 과정은 아글라비드 왕조를 전후하여 파티마 왕조기에 접어들며 완성되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중부 마그레브지역에서 아랍과 베르베르, 베르베르와 베르베르, 이외에도 이슬람 종파 간의 대결이 시칠리아 정복을 지지부진케 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서 시칠리아의 이슬람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베르베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거의 전무하다. 특히 베르베르의 다양한 부족 중에서도 ‘쿠타마족’에 대한 언급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시칠리아 이슬람화 과정에서 베르베르인이 시칠리아 정복에 참여한 여러 배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랍인 주도의 이슬람화가 아닌 이슬람화한 여러 베르베르 부족 주도의 이슬람화였음을 여러 문헌과 중부 마그레브지역 현지 조사 연구 내용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변부’에 있던 베르베르인의 역할, 나아가 이들이 시칠리아와 마그레브지역과의 연결 고리를 어떻게 해갈 수 있었는지를 가능해보고자 한다.